

데스크시각

김우성



인도의 1991년과 한국의 1997년. 양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국제통화기금)에 접수했던 공통점이 있는 연도들이다. 하지만 인도인들에게 있어 '1991년'은 한국인들의 '1997년'보다 훨씬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새삼 인도의 '1991년'을 환호도 삼는 것은 우리가 IMF를 겪은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경제는 더욱 어려워만 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개혁에 성공, 오늘날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 발전 시발점된 1991년

당시 인도를 외환위기에 빠뜨린 것은 폐쇄적 경제정책이다. 강한 규제를 견디지 못한 다수 외국기업들이 인도를 떠났고, 3%대 성장을 유지도 힘들 정도로 경제는 실패를 거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 당국은 경제성장 촉진을 이유로 외채를 과도하게 빌려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하지만 인도는 이를 경제성장의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 1991년 개혁 개방을 표방하는 신경제정책으로 고관세율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 던졌다. 이는 곧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이어져, 당시 1억 달러에 불과

IMF 10년, 인도에서 배워라

하던 것이 2005년 말 기준 145억달러(간접투자 포함)에 육박했다.

이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며 각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이 세계의 눈총까지 받아 가며 핵기술 및 핵물질 제공에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중국이 에너지 공동개발을 약속했고, 일본도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엔진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왜 세계가 인도로 몰리는 것일까. 최근 출간된 '세계경제의 뉴 아이본, 인디아 코드 22'는 그에 대한 명쾌한 답과 함께 우리가 왜 인도를 배워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 '전통 제조업의 세계공장'이 중국이라면 인도는 '미래 지식산업의 세계공장'이라는 점 때문이고, 21세기를 좌우할 지식산업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인도경제의 저력은 인재육성에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한 인도의 엘리트교육은 만 4세부터 시작되고 영어, 수학은 필수코스다. 또 명문 사립초교에 입학하려면 부모가 영어 테스트를 받아야 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IIT(인도 공과대학)는 세계 명문 공대도 이름을 올렸다.

이제는 곧 국내 기업들의 임금인상 등 분배혁명, 소비증가로 이어져 인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IMF까지 겪은 인도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6.3%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비결이다.

21세기는 지식산업의 시대다.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산업 인력이 영어·수학 실력이 뛰어난 인도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이다. 수십년 후 지식산업의 절반이 인도계라면 21세기는 인도혁명의 세기가 아닌가.

선진국들이 앞다퉀 인도를 찾는 이유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가. 경제발전의 큰 틀 제시는 커녕 개혁, 대선 대비 등 대통령부터 온통 정치에만 열안이 돼 있지

나, 국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이다. 인도는 지금 24억 인구와 12조5천억달러의 경제력의 천디아(중국·인도) FTA를 꿈꾸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우리의 선진국 진입은 영원히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팀이 인도를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인이고, 그 송금액이 무려 27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인재육성 등 대책 절실

이제는 곧 국내 기업들의 임금인상 등 분배혁명, 소비증가로 이어져 인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IMF까지 겪은 인도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6.3%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비결이다.

21세기는 지식산업의 시대다.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산업 인력이 영어·수학 실력이 뛰어난 인도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이다. 수십년 후 지식산업의 절반이 인도계라면 21세기는 인도혁명의 세기가 아닌가.

선진국들이 앞다퉀 인도를 찾는 이유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가. 경제발전의 큰 틀 제시는 커녕 개혁, 대선 대비 등 대통령부터 온통 정치에만 열안이 돼 있지

나, 국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이다. 인도는 지금 24억 인구와 12조5천억달러의 경제력의 천디아(중국·인도) FTA를 꿈꾸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우리의 선진국 진입은 영원히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팀이 인도를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시설

광주·전남 투자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기업투자 환경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기초발전에 나서 구제운 전남대 교수는 광주의 기업투자 환경 종합지수가 7대 대도시 가운데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16개 시·도 중 13위에 그쳤다. 이는 금융·노동·토지, 정보화 기술, 기반시설, 지방정부 정책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이 타지역에 뒤졌기 때문이다.

광주는 지난 95년부터 2006년까지의 고용률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역간 소득격차 지수 역시 90년 9위에서 2004년에는 14위로 더욱 떨어졌다. 열악한 투자환경-기업유치 부진-일자리 및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의 발전은 기업유치가 전제돼야 한다.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소득이 향상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 감면과 금융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각종 성과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과 기반시설 구축과 같은 중·장기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의 무리한 규제도 지역의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발규제는 환경과파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한정돼야 하지만 지방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투자 환경 조성은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반기업정서 해소 등 지역민들의 인식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방투자 활성화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광주 '숲 가꾸기운동' 확산 바람직하다

광주시가 올 봄에 가로수 150만 그루를 심기로 했다. 대상지는 광주공장과 관천동 고속버스터미널, 빗고을로 등 광주의 대표적 관문도이다. 전국체전에 대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녹지공간이 부족한 광주의 현실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무지구 등 도심의 생활공간도 새롭게 변모한다. 생태공간이 확대되고 계절에 따라 꽃과 잎, 열매 등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가로수 숲길이 조성되고 황단보도에 그늘숲을 만들어 환경을 쾌적하게 바꾼다. 학교 등 10곳의 답장도 허물어 녹지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숲은 공기를 정화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주고 있다. 세계의 유명도시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은 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이 50㎡, 오스트리

아 빈은 25㎡에 달한다고 한다. 광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7대 도시의 녹지면적은 6㎡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치 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숲이 줄어드는 원인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때문이다. 택지개발은 도시의 팽창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대체육지는 확보하지 않은 채 산림만 훼손해선 곤란하다. 산림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택지개발 등으로 숲을 훼손할 경우 같은 면적의 대체 숲을 조성, 도시 전체의 숲총량을 유지하게 하는 '녹지 총량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은 확산되어야 하며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주고 있다. 세계의 유명도시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은 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이 50㎡, 오스트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핀칼럼

박행순

내가 어렸을 적 우리 집 셋터에는 작두라고 불리는 펌프가 있었다. 이 작두는 공간도 작게 차지하고 위생적이야 펌프질로 땅속의 물을 손쉽게 퍼 올리는데 장점이 있어서 지금의 수도가 보편화되기 전 각 가정에서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단점은 작두 목테의 물이 빠져버리면 한 두 바가지의 마중물이 있어야만 땅속의 물을 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중물"은 땅속에서 솟아나올 분출을 맞이하려 나가는 물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하나의 의식처럼 대단히 정중한 느낌을 준다. 마중물을 영어로는 'priming water'라고 번역한다. 'prime'이라는 말에는 '최초의, 첫째의,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과 합

'마중물로 비유되는 대응투자'

최근 "나관(도화선)을 잡지하여 발화준비를 하다"라는 다소 격동적이고 파괴적인 의미를 가진다. 갖는 역할을 하는 한 바가지의 물에 대하여 동양과 서양의 표현 양식이 이렇듯 대조되는 것이 흥미롭다.

정부 여러 부처의 사업비에는 약 10% 이상의 자부담, 또는 대응투자라는 명목의 사업신청자 부담금 항목이 있고 이는 가산점으로 처리되거나 필수 금액으로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대응투자가 없으면 불리하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부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대응투자 확보를 받는 것, 그리고 실제로 약속한 금액을 받아오는 것이었다. 그간 대응투자를 요청할 때마다 내가 빠뜨리지 않고 약간의 과정을 섞어 사용하는 비유는 바로 '마중물'이다. "옛날 시골에

서 땅속의 물을 퍼 올릴 때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꼭 필요하지 않았느냐? 내게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주면 땅속의 우물물을 퍼 올려서 마을 사람들이 다 마시게 하겠다."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중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타 지역보다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사업 선점 시 지자체 자립도에 따라서 대응투자비용을 낮춰주는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협력사업은 한쪽이 들러리를 선다고 생각할 때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들러리를 서다"라는 부정적인 주장의 이면에는 그간 일부 협력사업이 한쪽에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이, 충남과 대전이, 부산과 경남이 협력사업을 수행할 때에 우리 역시 광주와 전남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서로를 배려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의껏 대하며 신뢰를 쌓아갈 때,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아끼지 않을 때 광주와 전남이 다 함께 우물물을 마시고 북마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마중물이 필요 없는 수돗물의 사용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장·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2005년 10월 수상자〉

명절때 혼잡한 고속도로 기본적인 에티켓 지키자

명절때면 반복되는 귀성, 귀경길 무질서를 생각하면 오히려 끔찍하다. 고속도로의 극심한 체증, 무리한 끼어들기, 갓길주행, 오토튠기, 역주행까지 일삼는 일부 운전자들, 무질서 경면장이 된 것 같다. 게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나면 도로는 마비가 된다. 밀리는 차량들에도 아랑곳없이 장시간 육성을 주고 받으며 뺄뺄를 계속하는 운전자들 짜증난다.

이외에도 아찔한 역주행도 있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소변을 보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나만 편하면 그만" "남보다 먼저 가야한다"는 잘못된 의식만 켜져간다. 평소 생활에서 질서를 지키고 주변을 깨닫는 습관을 기른다면 귀성·귀경길에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최영지·광주시 동구 산수동

명절때 혼잡한 고속도로 기본적인 에티켓 지키자

이외에도 아찔한 역주행도 있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소변을 보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나만 편하면 그만" "남보다 먼저 가야한다"는 잘못된 의식만 켜져간다. 평소 생활에서 질서를 지키고 주변을 깨닫는 습관을 기른다면 귀성·귀경길에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최영지·광주시 동구 산수동

기 고

도덕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설 연휴가 예년에 비해 짧은 관계로 교통 혼잡이 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많은 승객과 차량을 수용하는 여객선은 운항횟수를 증가하여 운항할 것이므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향상과 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및 자동차 보급확대로 해양관광의 수요증가와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여객선의 이용객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특히 설날 같은 명절에는 여객선의 이용객 수가 평소보다 2~3배에 달하여 여객선의 통행량과 운항횟수의 현저한 증가로 해상교통량이 급증한다.

설날 고향방문 안전한 뱃길되게 해야

현재 목표·여수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는 목표, 완도 및 여수지역 등 서남해안권 도서지방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56개의 일반, 낙도보조항로 및 부정기항로에 85척이 취항하면서 승객과 화물수송 등 해상교통을 담당하고 있고, 지난 해 설 연휴기간에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지방의 고향을 방문한 승객은 11만 1천422명이고 차량(승용차 및 화물차 포함)은 2만6천279대가 수송되었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화물과 여객선이 운항되는 최대의 도서여객 수송지역인 목표항은 승객 9만5천499명과 차량 2만3천735대를 각각 수송하였다. 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대부분 중·소형선박이지만 항해중 선박운항자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충돌, 전복 또는 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물질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인명이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

식당 공기밥 반그릇, 기본단위 정착시키면 어떨까

맛벌이를 하다보니 저녁에 업무가 늦게 끝나면 집에서 밥을 차릴 시간이 여의치 않아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보면 여러 번 느끼는 불합리한 점이다.

흔히 공기밥이라고 하는 밥을 사기만 최소단위가 '한 그릇'인데, 밥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한그릇을 사기면 3분의 1 정도는 남기는 편이고 젊은 여성들도 절반은 남긴다.

처음부터 밥을 덜어 먹는 사람이 많다. 밥그릇에 남은 양이 더 많고, 뚜껑에 먹으려

고던 양이 더 적으니 밥그릇과 뚜껑의 역할이 바뀔 전망이다.

외식할 때 다른 음식을 먹고 밥을 시킬 경우, 밥 한 그릇은 남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때가 많다. 그럴 경우 남은 밥은 대개 음식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밥의 양도 엄청날 것이다. 요즘은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라고 다 먹고 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다. 그러니 버려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공기밥도 이제는 '반 그릇'을 밥 판매의 기본 단위로 정착시켜 나가게 어떨까.

▲이아름·광주시 남구 화정동

無 等 鼓

슈퍼박

'아시아 지역 마케팅 차원에서 티셔츠를 팔기 위해 데려온 동양의 꼬마' 지난 2005년 6월 박지성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을 때 영국인들은 이렇게 비아냥 거렸다.

물론 화가 난 박지성이 "난 셔츠나 팔러 오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175cm의 왜소한 체구의 동양인이 세계 최고 선수들 사이에 끼어 공이나 한번 번번히 만져 보겠냐는 투였다.

그래서 '뉴스 오브 더 월드'는 '박 벤치(Park Bench)'라고 놀려댔다. 공원의 벤치라는 표현과도 잘 맞아 떨어졌는데, 주전선수들을 위해 벤치나 데우는 벤치워머(Benchwarmer)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깎아 보냈다. 하기에 박지성의 스승인 히딩크 감독마저도 당시 '맨유에서 벤치 신세가 될 것'이라며 맨유 이적을 말리기도 했는데 영국인으로서 박지성은 그야말로 만만한 먹잇감이었다.

슈퍼박

언론들은 당시 영어가 서툰 박지성의 코멘트도 그냥 놔두지 않았다. 맨유 입단을 위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뒤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베컴 같은 뛰어난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더니 영국 언론은 곧바로 "박지성이 베컴과 거름준비를 마쳤다(Park ready to emulate Beckham)"고 보도했다. 다른 신문은 한 줄 더 덧붙였다. 박지성이 "나는 (맨유감독) 퍼거슨을 위한 제2의 베컴"이라 했다고 조롱 수준의 영동한 제목을 뽑았다.

영국에 온 지 20개월이 지난 지금 박지성은 격세지감을 맛보고 있다. 지난 11일 멋진 헤딩으로 시즌 2호 골을 넣자 영국인들은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다. '박 벤치'라고 비하하던 '뉴스 오브 더 월드'는 1면에 머리기사로 취급하며 '슈퍼 박지성(SUPER PARK)'으로 대접했다.

이들 신문이 앞으로는 '슈퍼'이상의 표현으로 지면을 장식할 수 밖에 없는 박지성의 대활약을 기대해 본다.

/기현호 체육·어촌매체부장 khh@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경주시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언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3>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